설날 특별기고
김별아의 문학과 삶

떡국 한 그릇 찬 술 한 잔

며칠 전 강연회가 끝나고 책을 가져온 독자들께 사인을 해드리다 그만 아차 했다. 달력을 2014년 것으로 개비한 지 한참이나 지났는데도 새해에 적응하지 못해 날짜를 2013년이라고 적어버린 것이었다. 달과 날을 헤아려 살지 않는 나로서는 앞으로도 한참을 이렇게 실수해야 겨우겨우 2014년에 익숙해질 터이다.

그러고 보니 '새해'라고 말하기엔 아직 '묵은 해'의 그늘이 두텁다. 2014년은 청마(靑馬)의 해라지만 2014년 1월에 태어나는 아이들은 여전히 뱀띠이고, 음력으로 생일을 쇠는 사람들은 기어이 아직 한 살을 덜 먹었음을 주장한다. '시원섭섭하다'는 오묘한 말이 괜히 생겨났겠나. 모든 단절은 이처럼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옛사람들은 명절과 세시풍속을 중요시 여기고 극진히 치렀다. 전통시대에 한 해가 끝나고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는 설은 정월 초하루 달랑 하루만이 아니라 '설 명절'이라는 이름으로 정월 대보름까지 이어졌다. 현명한 조상들은 새해를 맞는 데만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묵은해를 보내는 데도 절차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떤 고장에는 '묵은 세배'의 풍습이 있어서 어른들을 일일이 찾아 인사를 드렸는데, 그때의 인사말은 "과세 안녕하십시오", 그러니까 묵은해를 잘 보내시라는 뜻이었다.

상혼(商魂)이 투철하고, 재산을 불리는 일에 재주가 묘하기로 유명한 개성상인의 고장 개성에서는 한 해를 말끔히 보내기 위해서는 빚을 털어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주목했다. 그래서 섣달 그믐날까지 한 해 동안 꾸어 썼던 돈이나 물건을 다 갚아야 한다는 것이 불문율이었고, 그때까지 빚을 갚지 못하면 새해에는 개성에서 현금 없이 신용 거래는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내가 어렸을 때만 해도 설 명절은 벅적지근하고 설레는 행사였다. 예전의 여인네들이 그러했듯 엄마들은 여유가 있으면 설빔을 마련해주었고, 여유가 없으면 양말 한 가지라도, 그조차도 버거우면 입던 옷을 손질해 다듬어주었다.

아빠들은 집 안팎과 골목길을 깨끗이 청소하고, 풍류를 아는 할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는 십장생이나 범과 닭 같은 길한 것들을 그린 세화(歲畵)로 벽장이나 미닫이문을 장식하곤 했다. 젊은 삼촌들은 섣달 그믐 밤에 빨리 잠들면 눈썹이 센다는 으름장으로 어린 조카들이 겁먹게 했다.

우리는 할머니가 챙겨주신 가래떡에 조청을 찍어 먹으며 온종일 썰매 타기 팽이치기로 고단한 몸으로 천근같이 무거운 눈꺼풀을 비비며 버티곤 했다. 달콤하고 진득한 떡에 목이 메고 졸음이 쏟아져 견딜 수 없을 즈음에 큰 엄마는 지게문을 슬쩍 열고 이 시리게 차가운 식혜나 동치미를 건네주시곤 했다.

아무래도 명절에는 특별한 먹을거리가 풍성하다는 것이 가장 큰 유혹이었는데, 내 고향인 강원도에서는 북쪽 지방의 영향을 받아 떡국 대신 떡 만둣국을 주로 먹었다. 만둣국을 끓이면 요리 솜씨가 좋은 큰 어머니가 아무리 애를 써도 제사상에 오르는 것을 제외한 대식구의 만둣국은 부서지고 으깨진 만두로 걸쭉한 일종의 스튜처럼 변해버리곤 했다. 그래도 그것이 참 맛있었다.

어른들은 세주불온(歲酒不溫)의 풍습대로 데우지 않은 찬 술을 한 잔씩 나눠 드셨는데, 그것이 다가올 봄에 열심히 일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뜻이라는 것은 나중에야 알았다.

이 모두가 지난날의 기억이다. 우리 집안만 해도 지금은 문화적, 종교적 이유로 모든 의식이 지극히 간단해졌다. 할머니는 돌아가셨고, 커버린 손주들은 각자 바쁜 용무를 핑계 삼아 슬쩍 전화 한 통으로 불참을 통보하곤 한다.

세뱃돈의 액수도 물가상승률 못지않게 커졌다고 하지만 그것을 받을 아이들이 얼마 없다. 한 개씩 겨우 차례가 오던 동그랑땡과 한과, 과일은 바구니에 넘쳐나지만 먹을 사람이 없다. 시대가 변했으니 사람의 풍속도 변하는 게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설 명절'이라는 말보다 '설 연휴'라는 말이 더 익숙하니 번거로운 귀향길에 오르기보다는 비행기를 타고 따뜻한 남의 나라로 훌쩍 날아가는 게 새로운 풍속이 되어간다.

하지만 뜨거운 떡국 혹은 만둣국 한 그릇을 훌훌 먹어야 비로소 나이 한 살을 먹은 기분이 들고, 찬 술 한 잔이 식도로 지르르 흘러내려 가는 것을 느껴야 힘내어 새날을 맞을 기운이 나는 이치마저 아주 사라질 수는 없다. 명절은 귀찮은 행사치레나 의례적인 절차만이 아니라 삶의 매듭을 짓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나처럼 지난 시간을 깨끗이 지우지 못하고, 새로이 다가오는 시간에 당황하는 어리보기들에겐 이런 적응의 시간, 절충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테다. 〈소설가〉

은펜칼럼

지방선거, 축제인가? 전투인가?

류동훈
행복문화사업단 단장

설날이다. 6월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설날이다. 후보자들도 바쁘게 움직이고, 유권자들도 여러가지 이야기꽃으로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것이다. 대학 다닐 때 정치학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신 것이 기억난다. 처갓집 상가집에 가 있는데 사람들이 정치에 대한 이야기로 논쟁을 뜨겁게 나누다가, 갑자기 조용히 있는 교수님을 보더니 "자네 정치학 교수니까 이 문제에 대해 한마디 해봐"라고 해서 몇마디 했더니 갑자기 상가집에 있던 동네 아저씨들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하네. 어떻게 정치학 교수를 하는가?" 하시면서 면박을 주고, 다시 열띤 논쟁을 하시더라는 것이다. 우리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관심이 많고, 모두들 자신들이 전문가라고 생각한다. 그와 함께 정치에 대한 혐오도 많다. 그리고, 선거를 치르고 나서 패배를 한 후 재산을 탕진하고 빚에 허덕이면서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도 많다. 금년 6월 역시 한바탕 회오리가 지나간 후 승리한 사람과 패배를 하여 마음의 상처를 안고 괴로워하는 사람, 선거가 끝난 이후 선거 때 겪었던 갈등으로 인해 지역사회가 분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선거는 민주주의 꽃으로 절대권력으로부터 이 제도를 만들어 내기 위해 역사 속에서 피흘리는 희생이 있었고, 그러한 노력으로 지금의 국민주권 시대를 열었지만, 이 선거로 인해 오히려 고통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지역사회가 분열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땅이 기름진 토양에서는 품질이 좋은 과실이 열리고, 척박한 땅에서는 품질이 떨어지는 과실이 열린다. 정치문화는 이러한 토양과 같다. 좋은 정치문화에서는 좋은 정치리더가 나와 좋은 정치를 할 수 있지만, 척박한 정치문화에서는 좋은 지도자와 좋은 정치를 만들어갈 수 없다.

좋은 정치문화 사례를 들어 보면, 지역 사회의 구체적인 현안을 가지고 지역민들과 함께 해결 방안에 대해 서로 논의를 하고, 자신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가고 싶으니까 도와 달라고 한다. 유권자들은 자신들의 소망을 이야기 해 주고, 출마자들에게 격려를 한다. 나쁜 정치문화 사례로는 자신의 비젼을 이야기하기 전에 상대방 후보의 잘못된 점을 지적한다. 또 자신의 당선을 위해 줄서기를 요구하면서 본인이 당선이 되면 해줄 사적인 대가를 제시한다. 유권자도 후보자를 만나면 상대방 후보자들을 같이 비방하면서 후보자에게 부담이 되는 요구를 한다.

좋은 정치 문화로 치른 선거에서는 설령 선거에서 패배를 하더라도 후보자와 유권자에게 서로가 남는 생산적인 소통의 장이 된다. 하지만, 나쁜 정치문화로 치른 선거는 후보자들간 갈등이 심화되고 지역사회가 분열하며, 이권개입으로 인해 부작용들이 발생한다. 부디 이번 설날 지방선거의 담론들이 전투가 아닌 축제의 이야기로 채워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칭찬과 격려, 지역사회 현안을 구체적으로 토론하는 아름다운 소통의 장이 되길 바란다. 후보자들 역시 차분히 유권자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면서 세련된 대화로 마음을 나누는 좋은 기회가 되길 소망한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기고

교육자의 기본 책무 다하고 있는가

전상훈
광주 첨단고등학교장

그 땐 왜 그랬을까? 지금부터 이삼십 여년 전, 교사 개인별 주당 평균 수업시간이 보통 스무 일곱 여덟 시간을 넘기기 일쑤여서 하루 평균 5시간 이상 수업하느라 잠시 쉬어볼 틈조차 없었음에도 혹시 옆자리 동료교사가 몸이 아파 못 나오거나, 부득이한 출장으로 결강이 생기면 그 수업을 서로 자기가 들어가겠다고 나서던 때가 있었으니 말이다.

세월 흐르고 흘러, 상상할 수조차 없이 근무여건이 좋아진 요즘은 그때보다 수업부담이 십여시간이 줄어 1일 수업량이 3~4시간 정도이다 보니 중간 중간 개인적 휴식이나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하지만 자기 수업 하나 해내기도 버겁다는 이유로, 어쩔 수 없는 경우가 아니고는 남의 수업을 자발적으로 대체해 주거나 보강을 맡는 경우가 거의 없다.

예전의 선생님들이 요즘 사람들에 비해 특별히 인정이 많다거나, 수고를 감당할 체력이 좋아서였을까, 아니면 제 앞의 이해타산도 따질 줄 모를 만큼 세상물정에 어두워서였을까. 그 때 그 선생님들을 그토록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일에 몸과 마음 모두를 바치게 만든 이유를 굳이 찾는다면, 직업의 특성 상 경제적 풍요는 못 누리고 살았을망정 교사라는 이름이 자랑스러웠고 가르치는 일 자체가 그냥 재밌어서 그러했다. 아이들 하나라도 잘못되거나 소홀이 가르치면 그 죄가 하늘처럼 무거울 것 같은 마음을 서로 나누어 가졌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소명의식 또는 교육자적 열정이라 이름 붙여도 좋을, 선생님들의 그러한 뜨거운 사랑 속에서 아이들은 저마다 꿈을 키워나갔고 그 인연의 소중함이 평생을 두고 사제간의 정으로 오래오래 이어지곤 하던 아름다운 미담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았었다. 하지만 세태가 변하다보니 학교도 교사도 도무지 예전 같지가 않다. 입시위주교육의 틀에 갇혀 교과서적 지식만 주고받는 관계여서 그런지 스승과 제자 사이의 두터운 정리(情理)도 찾아보기 힘들고, 동료교사들 간의 서로를 위하고 보듬는 인간적 유대의 끈도 갈수록 약해져서 마치 모래알끼리 부딪히듯 메마르고 삭막하게들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안타까운 것이, 선생 똥은 개도 안 먹는다 할 정도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힘들었던 옛날에 비해 비교할 수조차 없이 나아진 교육환경, 생활여건 속에서 지금의 선생님들에게 주어진 시간적 여유와 개인적 자유로움의 향유 정도가 커졌다면 그에 맞게 교직만족도 또한 높아져야 할 터인데 오히려 현실은 그 반대라는 사실이다.

세속적 직업인으로서 이기적인 삶의 욕구를 충족시키는데 치중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지다 보니 교직사회 특유의 교사 상호 간 공동체적 연대의식이 사라짐과 동시에, 소명의식의 약화로 인해 교육자로서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데서 느끼는 정신적 자긍심 또한 예전만 못하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했던가. 학교폭력이 늘어나고 사회부적응 위기학생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선생님들에게 기대되는 역할과 책임은 예전보다 더욱 막중해지는데, 편해질수록 더 편한 길만 찾게 되는 안일한 타성이 고착되다 보니 학생지도 업무나 담임을 서로 기피하는 현상까지 빚어지고 있는 현실은 안타까움을 넘어 학교의 위기요인이 되고 있다.

풍속과 시류가 아무리 급변한다 해도, 사람을 가르치는 일을 업으로 삼는 교육자의 기본 책무는 결코 가벼워질 수 없고 헌신과 봉사를 미덕으로 삼는 교직사회의 기본 덕목은 결코 변해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교육의 위기를 걱정한다면, 아이들이 있기에 학교가 존재하고 아이들이 있기에 선생님들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교권이 추락하고 학교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왜 이토록 깊어졌는지를 곱씹어 보아야 할 때다.

외과전문의 충분히 확보하도록 제도적 개선 필요

의대에 입학한 친척 동생이 성형외과나 내과쪽으로 공부할거라는 얘기를 했다. 필자는 개인적으로 의료에 대한 지식도 없고 그 전문분야에 대해 아는바가 없어서 그냥 그 동생의 적성이 그렇겠거니 했다.

하지만 얼마후 그 동생이 성형외과나 내과쪽을 택한 이유는 외과는 어렵고 힘들고 위험도가 높아 기피했다는 것이다. 그 말이 친척 동생만의 일이 아니라 의대생들 사이에서는 장래를 결정할 때 적잖게 고려되는 요소라고 하니 그냥 웃어 넘길 일은 아닌듯 하다.

위험도가 높다 보니 외과쪽은 현재 전공의 지원율이 겨우 50% 초반을 밑돌고 있으며 전국 유수의 수련병원에서조차 대부분 미달이라고 한다. 외과는 전문의 취득 후에도 취업, 개원의 어려움이 있고 소위 비젼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전국에 외과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도 꽤 있다고 한다. 급성 외과적 질환이나, 각종 재해손상, 암, 장기이식 등 생명을 다루는 필수과인 외과 전공의 지원율이 계속 떨어지는 것은 국가적인 필수 진료의 방벽이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 아닌가.

지난번에 소말리아 해적에게 총상을 입은 석해균 선장을 치료한 팀은 경기도 아주대학 병원의 모 전문의였는데 국내에 총상치료 전문의는 그쪽밖에 없고, 놀랍게도 국립서울대병원에조차 총상전문 외과의사가 없다는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정도이니 동네 외과의원도 경영상 이유로 점점 사라지고 있다.

앞으로 대학병원과 대형 병원 위주로 외과전문의를 더 많이 채용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정부는 외과쪽의 의료수가를 현실화시켜 병원 경영난을 덜어주고 의료 인력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내과쪽 질병은 응급환자가 거의 없고, 일단 병을 찾아낸 후 천천히 치료하지만 외과쪽 환자는 생명이 촌각을 다투는 환자가 많다. 그런 외과 전문의가 갈수록 줄어든다는 것은 국가 복지 차원에서도 심각한 일이 아닐수 없다. ▲송경희·광주시 광산구 대산동

社 說

지방대, 뼈를 깎는 노력만이 살 길이다

28일 발표된 대학구조개혁 추진계획에 따라 지방과 수도권대학의 불공정 시비가 일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대학은 지방대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당하기 쉬워 뼈를 깎는 자구책이 요구된다.

교육부는 오는 2017년까지 1단계로 전국 대학의 정원을 4만 명 감축하는 등 2023년까지 모두 16만 명을 줄이는 내용의 개혁방안을 밝혔다. 2022년까지 3주기로 구분해 주기마다 모든 대학을 최우수-우수-보통-미흡-매우 미흡 등 5등급으로 평가하고, 등급에 따라 최우수 대학을 제외한 각 대학에 차등적으로 정원을 축소한다는 방침이다.

이같은 방식은 교육시설, 산학협력, 국제화 등 평가지표에서 서울지역 대학보다 현저하게 뒤질 수밖에 없는 지방대학의 '희생'을 강요할 공산이 크다. 또 절대평가 방식으로 등급을 매기기로 해 열악한 지방대학 현실을 감안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지방과 수도권, 국립과 사립대학의 특성을 고려해 평가를 구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지방대학의 자구노력도 절실하다. 강점을 지니고 있는 학과나 특성화된 분야를 더욱 활성화시켜 최우수등급 비중을 더욱 높이는 자구책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이다. 경쟁력을 높이지 않으면 도태는 불가피하다. 철저한 대비와 뼈를 깎는 노력을 통해 대학구조개혁을 명문대학으로 거듭나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지방대학들은 정원과 학사과정에 과도하게 비대하거나 겉치레로 운영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판단해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시라도 과잉투자된 부분이 있다면 과감히 줄여 선제적으로 대비해야만 생명력을 이어갈 수 있다.

교육부 역시 대학구조개혁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억울하게 정원을 감축당하는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이는 지방대의 특성과 열악한 현실을 감안한 평가가 전제돼야 하는 것이다.

설 대이동 때 AI 방지에 전국민이 협조해야

전북, 충남에 이어 전남에도 조류인플루엔자(AI)가 유입돼 초비상이 걸린 가운데 29일부터 귀성이 시작될 설 연휴 기간이 AI 전국 확산의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7일 경기도와 충청 등 5개 지역에 '이동중지 명령'을 한시적으로 발동했지만 설 연휴 3000만 민족 대이동이 이뤄지면서 사람과 차량에 의한 AI 확산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에서 첫 AI가 발생한 해남은 현재까지 오리와 닭 3만3000여 마리를 살처분 했으며, 모든 가금류 농가에 대해서는 이동제한조치를 내렸다. 국내 최대 오리 사육지인 나주 세지면 오리농장도 감염 의심지역으로 지정돼 이 농장을 중심으로 반경 3㎞ 이내에 사육 중인 가금류 23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최종 매몰된 닭과 오리는 30만 마리를 넘어선 상태다.

문제는 정부가 이동중지 명령 등 각종 대책을 내놓고, 지자체 공무원들이 방역에 심혈을 쏟고 있으나 AI가 악화일로에 있다는 점이다. 방역당국은 AI 발생 초기인 지난 19일 광주시와 전남·북에 이동중지 명령을 발동했지만 닷새 후 해남에서 AI가 발병했었다. 이동중지 명령이 아무런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이다. 또한 지자체가 방역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나 보란듯이 저지선이 뚫렸다.

특히 설 연휴 기간, 고향을 찾거나 성묘를 다녀오는 등 국민 대다수가 한꺼번에 이동하기에 AI를 차단하기란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고향 방문 시 이동통제 초소에서 실시하는 방역을 필히 해야 한다. 가금류농장이나 철새도래지 주변의 방문을 가급적 자제하고, 꼭 방문해야 할 때는 차량 내·외부와 사람에 대한 소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 국민적 협조 없이는 AI 차단은 불가능하다.

방역당국도 설 명절기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AI 근절을 위한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줄

우리 전통신화와 설화를 살펴보면 이곳저곳에 수많은 줄이 늘어져 있다.

제주도 창세신화인 '천지왕 본풀이'에는 아버지 옥황상제를 만나기 위해 거대한 박넝쿨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아들들의 이야기가 나온다. 옥황상제 천지왕이 속세의 총명부인과 결혼해 얻은 두 아들-대별왕과 소별왕은 어머니를 졸라 천지왕이 남겨둔 박씨를 얻어낸다. 박씨를 땅에 심은 두 아들은 까마득한 하늘 궁전까지 뻗어 천지왕의 용상(龍床)을 휘감은 박넝쿨을 기어올라 아버지를 만난다.

바리데기와 더불어 우리의 대표적 민간신화인 '제석본풀이'에도 박넝쿨 이야기가 등장한다. 금지옥엽으로 살다가 제석님의 유혹에 빠져 세 아들을 낳은 당금애기는 아버지를 찾는 아들들에게 하루에도 천길, 만길을 자라는 박씨를 건네준다. 세 아들은 출렁출렁 뻗어나는 박넝쿨을 좇아 아버지를 찾아낸다.

'세경본풀이'의 주인공 문도령은 사랑하는 아내 자청비를 떼어놓고 하늘 옥황으로 올라가는데, 타고 가는 것이 바로 노각성자부줄이라는 '줄'이다.

유명한 설화 '나무꾼과 선녀'이야기에서도 줄이 나온다. 두 아이와 함께 깃옷을 입고 승천해버린 선녀 아내를 찾아 하늘로 올라가려는 나무꾼이 이용한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두레박 줄'이다. 또 다른 설화인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를 피할 수 있도록 하늘에서 내려 준 것도 '새 동아줄'이다.

한국인의 DNA에는 '하늘은 좋은 것, 신령스러운 것'이며 '줄은 그런 하늘로 올라가기 위한 수단'이라는 생각이 새겨져 있는 듯하다. 하지만 현실세계에서의 '줄'은 신화의 줄(Rope)과는 달리 입신양명을 위한 혈연·지연·학연의 네트웍(Network)으로 변질한 지 오래다.

최근 전국 295개 공공기관을 조사한 결과, 상당수 기관장과 감사 자리가 정치권 줄을 탄 낙하산 인사로 채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줄이라도 사람이 만들었으니 언제든 썩지 않을 수 없을 터. 오누이 잡아먹으려 호랑이가 타고 오르려다 낭패한 '썩은 동아줄'은 현실에 '인과응보'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아니겠는가.

/홍행기 사회1팀장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FAX 222-4918〉 편 집 부 2200-649 정 치 부 2200-612 〈대표FAX 222-4918〉 사 회 부 2200-616 〈대표FAX 222-4267〉
경 제 부 2200-663 문화 1부 2200-661 문화 2부 2200-651 여론매체부 2200-621 체 육 부 2200-697 사 진 부 2200-693 조 사 부 2200-571
경영지원본부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